

제 14 호

연중 제 9 주일

(출판물 보급 주일)

1973. 3. 4

순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칼론】



사순절을 맞이하여

합승천신부

하느님의 자녀들은 머리위에 재를 받으며 사순절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19)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읍니다." (마르코 2:17) 이런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순절 동안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사람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표현하며, 또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껴 보속을 하려한다.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보속을 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매우 불안스럽게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 우리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씻기 위함이고, 우리들의 구원을 약속함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난은 바로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희망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된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신앙적인 보속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같이 참여하겠다면, 이 특별한 시기(사순절) 동안 만이라도 깨끗한 마음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진정한 마음을 무질서한 감정에서 해방시켜 잠시 지나가는 현세의 일 보다는 영원한 일에 정신을 써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가? 보속이나 극기라는 말은 왜 옛말이 되고 말았는가? 시대의 복잡한 점들을 생각하여 대소제(단식과 금육)의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에 그 정신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은 어떠한가? 이는 사순절의 참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순절은 "깨끗한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기꺼이 기다리는 신도들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보다 충실히 사랑을 실천케 하시어 새로운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를 자주 생각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은총을 더욱 충만히 받는다"(사순절 감사송) 시기인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말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광명의 잡웃을 입어야 할 때이다. 물질적인 보속행위는 못할 망정 영신적인 보속행위를 많이 해야 할 때이다.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친절과 선, 용서와 은유, 친절과 실천이 바로 그것이다. (노송동 주임 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나를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외롭고 가난한 이 몸이오이다. 불쌍하고 애달픔을 굽어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 **독서** (고린토 후서 4:6-11, 성서 p. 409)
예수의 생명이 너희 몸에서 드러나게 하라.

□ **찬가송** 풍악을 울려라, 북들을 쳐라. 현금에 맞추어 비파소리 곱게, 초승에 한보름에, 우리네 축제일에, 너희는 우렁차게 나팔을 불라. ◎ 우리 힘, 하느님을 기꺼이 찬양하라.

□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여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시니, 진리를 위해 우리 몸 바치게 하소서, 알렐루야.

□ **복음** (마르코 2:23-3:6, 성서 p. 79)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비오니, 매스콤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업에 우리 모두 협조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비오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매스콤 사업에 애쓰는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넘치게 주소서. ◎

3. 주여 3월 7일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사순절을 뜻있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도움없이 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로 제 갈길을 바로 가게 도와주소서. ◎

■ 맺음 기도 (매스콤을 위한 기도)

스승이신 예수여, 흠송하나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재이시여, 모든 것은 당신의 지혜와 능하신 힘과 선하신 사랑에 참여하오니, 그 모든 것을 현대 생활의 향상과 영원한 생명의 준비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온갖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신 예수여,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우리 정신에 빛을 주시어, 대자연으로부터, 영화와 라디오와 텔레비와 음반 등, 시청각의 새로운 기술들을 발견하게 하셨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천상보화와 그 지식과 행복과, 그리스도의 문화를 신속히 전파할 수 있나이다. "세게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와 미래의 것이 모두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이니라"

□ **영성체송** 분명히 말하노니, 기도하면 구하는 바를 받으리라, 믿으면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 이 주간의 성경 *

- 5 (월) 독서(로마 6:1-14, 성서 p.347)
복음(마르코 12:1-12, 성서 p. 105)
- 6 (화) 독서(로마서 6:15-23, 성서 p.348)
복음(마르코 12:13-17, 성서 p. 106)
- 7 (수) 제의 주요일(※단식과 금육)
독서(고린도 후서 5:20-6:2, 성서 p.411)
복음(마태오 6:1, 16-18, 성서 p. 11)
- 8 (목) 독서(로마서 7:1-6, 성서 p.349)
복음(루가 9:22-25, 성서 p. 151)
- 9 (금) ※금육 독서(로마서 7:7-12, 성서 p.349)
복음(마태오 9:14-15, 성서 p. 19)
- 10(토) 독서(로마서 7:13-25, 성서 p.750)
복음(루가 5:27-32, 성서 p. 136)

□ 교회법 □



단식재와 금육재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또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곧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루가 10:16)

그리스도로부터 하느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돌볼 권한을 이어 받은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법을 정한다. 교회법 가운데 이런 규정도 있다. ※ 정한 날에 단식재(斷食齋)와 금육재(禁肉齋)를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재제(齋戒)하셨고 성인 성녀들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재제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인 성녀들의 모범을 본받아 자신을 억제하고 하느님께 희생을 바치며 남에게 자신을 베풀기 위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재제하기를 명한다.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는 단식재와 금육재를 결합 지킴으로써 사순절의 금요일 마다 금육재를 지킨다.

단식재는 만 21세부터 만 60세까지 지키고,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킨다.

“나는 오히려 나의 육신을 때려서 종으로 삼는다. 남에게는 전도를 하고도 내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서이다” (고린토 전서 9:27)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는 육정과 원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다” (갈라디아 5:24)

-가톨릭교리서 제51과, p. 185~187-

사순절이 시작되는 3월 7일부터 우리는 위에 소개한 교회법을 지켜야 한다. 옛부터 사람들은 무슨 중요한 일을 시작할 적에는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나서 시작했음을 우리는 기록에서 읽을 수 있다. 지금도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위의 죽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인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단 두번 동안의 단식과 몇차례의 금육에 핑계부터, 짜증부터 시작할 것인가? 세계를 무력으로나 경제적으로 지배하기는 쉬워도 자기 자신을 지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단식과 금육도 중요하지만, 불같은 성질도 죽여보고 연일 장취의 술도 즐겨보고, 건강을 해칠 정도의 지나친 담배도 삼가해보자. 가끔 가끔 지나치게 빠져 버리는 취미생활을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도 살펴보고, 다른 때보다도 더욱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자.

단식재 (3월 7일, 4월 20일)

금육재 (3월 7, 9, 16, 23, 30일, 4월 6, 13, 20일)

□ 양지쪽 □



주간 잡지

어둠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우체국 비거리를 중심으로 카스캄프가 켜지기 시작한다. 눈을 끄는 가운데 하나가 싸구려 책이다. 외할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 세상 인심이니 싸구려에 회가 통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바로 실망하지 않고는 못배긴다. 페이지가 제대로 안 맞는 것은 물론이요, 그 내용이 더욱 그렇다. 표지도 엉망이고 제목조차 뚜렷하지 않은게 많다.

당신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고 물으면 열여덟은 그 대답이 재미있다. 공부 좀 열심히 하는 학생은 교과서나 참고서가 교작이고, 열간 지성인들은 주간잡지나 뒤적인다는 것이고, 꼬마들은 만화(그것도 불량만화) 나 부랭이고, 대개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읽는다는 것이다. 시간을 낸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하다. 하지만 너무나 읽지 않고, 또 읽어도 신통치 못한 것들이 거의 대개니까 문제이다. 우선 나부터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음이 새삼 부끄러웠다.

일주일 전에 서울 C.C.K(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에서 회의가 있어 참석했다가 그 회의실 벽에 있는 좋은 통계자료를 얻었다. 도서 매출 통계이다.

1971년에 통 털어서 209,196권의 종교 서적이 팔렸고 1972년엔 241,915권이 팔렸다는 것이다. 그나마 매출된 도서의 순위(인기?)가 일품이다. 71년에는 기도서와 전례서가 47.8%로 1위이고, 교리서가 33.4%로 2위이다. 그런가 하면 72년에도 변함없이 기도서와 전례서가 54%로 1위요, 교리서가 36%로 2위이다.

한국 천주교 신자가 80만이라는데 고작 1년에 20만권 남짓한 숫자의 도서가 팔리고 있다는 일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쁠 일은 없지만, 20만권의 책 가운데 반절은 기도서나 전례서이니 겨우 1년에 10만권 남짓의 책이 팔렸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통계는, 지나치게 평해서, 아직도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의무적으로 주일이나 지키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달에 1~2권의 교회서적을 살때, 그런 통계로 보면 5천 남짓의 사람만(거기에서 성직자 수도자를 빼고나면 거의 없다)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아직도 주간잡지는 매주 애독하시며 잡지에 끼어 있는 수영복 차림의 배우 사진을 벽에 붙여 놓기는 하지만, 성경이나 성서, 고상이 없는 집은 없는지, 그것이 문제이다. (갑)

성서 성물은 성 바오로 서원에서
중앙성당 옆 (☎ 7398)

※ 개업안내 ※

중앙 가방 센터

<여행구 핸드백 학생가방> 도산매

교우에게 특별 할인

중앙성당 상가 노벨제과 옆

방벨라도 (용석)

최 씨 관 집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 병 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 6691 교환85번)

* 대화의 광장 *

● 잔디밭 ●



오늘은 출판물 보급 주일입니다

□ 양서 안내 □

국민 학생들의 읽을거리

- 유년 문고 (960원)
 1. 어린 예수님 (120원)
 2. 예수님의 말씀 (120원)
 3. 예수님의 기적 (120원)
 4. 예수님의 십자가 (120원)
 5. 예수님의 부활 (120원)
 6. 미리암 (120원)
 7. 행복한 양자 (120원)
 8. 논니와 만니의 모험 (120원)
- 성경의 비유 이야기 (1,100원)
 1. 용서해 주자 (220원)
 2. 부자와 나자로 (220원)
 3. 착한 마음 고운 마음 (220원)
 4. 아빠 (220원)
 5. 길 잃은 어린 양 (220원)
- 아름다운 비밀 (450원)
- 천사와 피리 (400원)
- 베베노 (200원)
- 마르켈리노 (200원)
- 하느님이 하신 일들 ㉠ (250원)
- 하느님이 하신 일들 ㉡ (300원)
- 황혼에 우는 중 (350원)
- 검은 눈동자 (350원)

중·고등 학생들의 읽을거리

- 유니버살 문고 (3,330원)
 1. 은전한 사람 (160원)
 2. 보람있는 삶 (180원)
 2. 영원한 것을 (230원)
 4. 님 (100원)
 5. 빛을 향하는 마음 (120원)
 6. 보라 이 여성을 (120원)
 7. 파비올라 (250원)
 8. 아름다운 인간상 (200)
 9. 누가 우리에게 숨김없이 말해줄까 (80원) 10 숨김없는 대답 (100원)
 11. 꽃피는 봄 (150원)
 12. 어린이 버릇 고치기 (130원)
 13. 소용돌이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것 (160원)
 14. 천대인에게 대답한다 (100원)
 15. 새벽녘의 메아리 (140원)
 16. 목주알 (170원)
 17. 보리수 (190원)
 18. 꽃샘 일شم 바람 (170원)
 19. 성공과 행복의 열쇠 (200원)
 20. 만리 무영 (270원)
 21. 나는 신을 만났다 (220원)

젊은이들의 읽을거리

- 유니버살 문고 (3,330원)
- 참 삶의 길 (300원)
- 고독에의 도전 (550원)
- 천국의 열쇠 (700원)
- 르·폴 선집 (350원)
- 사랑을 구하는 마음 (350원)
- 사랑을 주고 받고 (550원)
- 행복은 어디에 (550원)
- 국화 문고 (전6권, 각250원)

어른들의 읽을거리

- 내집 낙원 (420원)
- 민속과 서학 (500원)
- 무상을 넘어서 (750원)
- ※ 크리스찬의 필독서
- 공동 번역 신약성서
- 합본 북음서

- 주·월간 서적 -

- 카톨릭 소년
- 카톨릭 시보
- 경향 잡지

- 성 바오로 서원 제공 -

의료협동조합 가입하여 건강하고 밝은 내일 약속 받자



총 재 김재덕 주교
이사장 이대권 신부
조합원 262명

매월 400원씩의 회비로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단의 무료 혜택은 물론 치료비의 70%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의 문의 연락처 ③3201 ③3498

전북 의료 협동 조합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③3498)

- 5 (월) 교리 교실~ 박 진량 신부 지도
- 6 (화) 젊은이의 광장
- 8 (목) 불어 교실

※ 젊은이의 광장 (매주화요일)

- 성경은 참으로 기쁜 소식인가?
(오후 8:00-8:40 유장훈 신부 지도)
- 진정한 노래와 즐거운 게임으로 젊음을 보람차게
(오후 8:50-9:30 레크레이션 교실)

※축 발전※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고사동 1가 오거리통 동아여관앞 전화 ⑥6094

※축 발전※

동남 샵프 TV 및 스토-브

전주 대리점

전주극장 입구 ③5504

여 요 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소 재의 수요일 이마에 재를 받는 재의 수요일이 3월 7일입니다. 집집마다 고상위에 얹어두었던 성지를 본당에 가져 오셔야겠습니다.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사순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시 출판물 보급 주일 오늘은 출판물 보급 주일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가톨릭 출판물을 보급하고 있는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조그마한 정성들을 헌금으로 모아 출판물 보급 사업에 보탬이 됩시다. 기도 중에 성바오로 서원을 기억합시다.

주교님 성성식 오는 3월 22일(목) 오전 11시 김추기경님 주례로 주교님의 성성식이 중앙성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바랍니다. (행사 주관-교구 사무협의회)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고등부 학생회 정기총회 (3월 10일 학생미사 후) 안전-임원개선, 회칙 보완
 3. 구리아 월례회 (3월 11일 오후 2시)
 4. 사제 양성 후원 기금
신입만 하신분은 신용조합에 속히 적금 불입바랍니다
 5. 사순절 기도지향
 - ① 본당의 병담교우 회두를 위해 희생과 극기를 합시다
 - ② 성지는 월요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 지난 주일 봉헌금 30,053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훈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예비자 교리 (공식미사 후-오신부님 지도)
3. 지성인 교리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후-//)
□지난주일 성미 (2달 2회) 누계 98달 1회 5홉
지난주일 봉헌금 11,106원,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와 우리 본당은 우리들의 힘으로!”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김낙철

1. 사도회 월례회 (오늘저녁 미사 후)
2.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반회 (3월 부터 시작)
4. 학생회 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안전-임원개선
5. 본당 유지 현황 (3월 4일 현재)
수입 (935,870원) 지출 (926,942원)
□지난주일 교무금 38,800원
지난주일 봉헌금 7,986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학생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신용조합 월례회 (3월 11일)
4. 애령회 간부 월례회 (3월 6일 12시 본당)
5. 본당 신축기금 모금 운동에 협조합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6,868원
학생회 봉헌금 642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출판물 보급 주일 특별헌금
바로로 서원에서 출장 판매도 합니다.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3. 신입생 등록 요망
 - ① 국민학교 신입생-교리교사회
 - ② 중·고교 신입생-학생회
4. 학생회 정기 총회 (3월 11일 공식미사 후)
안전-임원개선
5. 재의 수요일 (3월 7일, 단식과 금육)
성지는 월요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지난주일 봉헌금 25,07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봄 판공 실시
3월 13일-전당리 14일-미산리 15일-내동리
16일-동산촌
2. 사도회 확대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 ① 판공 성사 대비
 - ② 본당 운영 관리
3. 예비자 교리 (공식미사후-신부님지도)
4. 아동 교리 (일요일 오후 2시 반)
5. 학생 교리 (공식미사 후)
□ 지난 주일 봉헌금 4,655원 감사합니다.

사제 양성 후원 기금 협조자

남원 누계 50,000원

일월공소 이상태 외 (5만원)

덕진 누계 50,000원

복자 누계 1,265,000원

중앙동 이복주, 홍명선(각5만원), 김극완(1만원)

진북동 권벨라벳다, 김행자, 신경순(각1만원)

태평동 이영우, 주순례 (각1만원)

서학동 누계 264,000원

김글라라, 유데팔라(각2만원), 이승우(1만5천원)

전동 누계 1,715,000원

교동 김병오(2만5천원)

중앙 누계 2,343,500원

경원동 안훈배(2만5천원), 이해조(5천원)

서노1구 김을태(5만원), 원현식(5천원)

진북2구 유정자(5천원)